

## 북영천역 인근 화물열차 탈선(1보)

- 원희룡 장관, 철저한 원인규명과 신속한 사고복구 지시 -

- 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)는 5.10일(수) 11:32분경 제천발 신동행 화물열차(제3273호)가 북영천역 인근에서 운행 중 탈선한 사고와 관련,
- 철도안전정책관, 철도안전감독관, 철도경찰 및 사고조사반(교통안전공단 등)을 현장에 즉시 투입하여 철저한 원인 조사 및 책임소재를 규명할 계획이다.
- 이번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으나, 터널(원재)내 탈선으로 복구 시까지 장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, 13:00 현재까지 열차 7편성이 운행 중단 또는 조정\*되었으며,
- \* 운행중지(5회) : 대구선(영천~동대구)을 운행하는 열차(상행 2회, 하행 3회)  
운행조정(2회) : 동해~동대구는 영주까지 운행 후 버스와 연계  
부전~동대구는 신경주까지 운행 후 버스와 연계
  - 코레일은 열차운행 중단에 따른 승객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버스 연계 수송을 시행하고 있다.
  - \* 역사 및 열차 내 안내방송, 코레일톡(App), 홈페이지,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안내
-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“사장 직무대행을 중심으로 최대한 모든 장비를 총동원하여 신속한 사고 복구에 만전을 기해달라” 고 당부하면서,
- “사고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, 철도 안전에 있어 소홀한 부분이 없었는지 거듭 점검하여 유사사고 재발을 방지할 것” 을 지시하였다.

|       |         |     |     |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|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담당 부서 | 철도안전정책관 | 책임자 | 과 장 | 조성균 (044-201-4600) |
|       | 철도안전정책과 | 담당자 | 사무관 | 이인원 (044-201-4603) |